



## 신세계, 광주 스타필드·백화점 '매머드급 개발'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조성  
총 1조7천억 투입... "3만여명 고용 창출·랜드마크 거듭날 것"

신세계그룹이 광주복합쇼핑몰 관련 호남권 첫 스타필드 건립과 광주신세계 확장 등 '매머드급 동시 개발' 카드를 내놨다.

어등산 부지의 '스타필드 광주(가칭)'와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하고 업그레이드시킨 가칭 '광주신세계 Art & Culture Park (아트 앤 컬처 파크)'가 골자로 총 1조7천억을 투입해 동시 개발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랜드마크 조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그룹은 17일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 연회장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와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쇼핑몰 개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구상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마트의 자회사로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역량을 총집결해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의 체류형 정통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를 개발할 계획이다.

◇스타필드 광주=스타필드 광주는 부지 3만평, 연면적 9만평 규모로 8천여여원을 들여 쇼핑·문화·체험형 콘텐츠·레

저·엔터테인먼트에 휴양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300여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와 도심형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시설 등이 마련되며 지역 특성과 고객 니즈, M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매장 구성에 반영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문화 향유 콘텐츠 등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어등산 부지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체류형 리조트를 추가로 건립해 스타필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 콘셉트도 구상 중이라는 게 신세계프라퍼티 측의 설명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외곽의 어등산 관광단지가 넓은 부지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다만 아직까지 광주시와 협의가 없었고 현재 어등산 부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른 2·3차 부지 개발 계획 안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상생방안으로 광주 현지 법인과 지역민 우선 채용 등 3만여명 직·간접 고용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브랜드 입점, 전통시장 지원 상생 프로젝트 등을 약속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신세계그룹이 17일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에 복합쇼핑몰(스타필드 광주)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광주매일신문 DB>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광주와 함께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가칭 '광주신세계 Art & Culture Park (아트 앤 컬처 파크)' 구상도 제시했다. 신세계 강남점의 '고품격' 등 신세계 전국 매장의 최대 장점들을 모아 문화와 예술은 물론 최첨단 과학과 최신 트렌드

의 쇼핑 콘텐츠를 결합한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을 만든다는 것이다. 영업 면적은 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와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야외주차장 부지를 합친 총 13만2천230㎡(4만평)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인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준하는 면적이다. 건축과 리모델링 비용에만 약 9천억

원이 투입된다.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복합쇼핑몰 유력 부지로 거론된 광천동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부지도 추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전될 경우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 활용할 계획 또한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 코로나 확진자 수가파른 상승곡선

광주·전남 하루 1만3천명 돌파

광복절 연휴 이후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3천명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이날 말까지 신규 확진 2만명 안팎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5천521명, 전남 7천509명 등 총 1만3천30명으로 집계됐다. 광복절 연휴 시작일인 지난 13일 확진자가 9천512명(광주 4천486명, 전남 5천26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3일 만에 3천500명 이상 폭증한 셈이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하루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12일(8천447명) 이후 126일 만의 일이다. 지역 별로 전남 동부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날 여수에서는 1천669명이, 순천에서는 1천381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는 전남에서만 3명이 추가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광주 8명, 전남 20명 등 총 28명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확진자도 광주 6천680명, 전남 5천359명 등 총 1만2천39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8월 들어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 광주 5만8천505명, 전남 6만8천319명 등 총 12만6천824명으로 이번 주를 지나면 20만명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 월별 확진자는 ▲1월 1만2천703명(광주 7천390명, 전남 5천313명) ▲2월 11만9천539명(광주 6만7천532명, 전남 5만2천7명) ▲3월 60만6천195명(광주 28만6천220명, 전남 31만9천975명) ▲4월 30만9천901명(광주 13만4천883명, 전남 17만5천18명) ▲5월 6만3천752명(광주 2만7천855명, 전남 3만5천897명) ▲6월 1만3천820명(광주 5천813명, 전남 8천7명) ▲7월 7만1천27명(광주 3만4천946명, 전남 3만6천81명) 등이다. /김재정기자

## 윤석열 정부에 '지방'은 없었다

모두발언·성과 책자·질문응답 지방 관련 언급 전무

●尹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은 없었다. 이를 두고 윤 정부 '지방 3무(無)', 즉 '무개념' '무관심' '무계획'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은 외면당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균형발전 관련 성과는 커녕 언급조차 없었다.

앞서 기자회견 직전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도 '지방' 관련은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우주

시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있었지만 '지방시대'는 담겨 있지 않았다.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이어진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역시 '지방'은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강인선 대변인은 질문을 받기 전 "사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가 봐도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단 간사들을 중심으로 질문자를 정해냈다는 게 표가 날 정도로 '짜고 친', '각본 있는' 기자회견 질의응답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자유질문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직접 질문자 지명을 하는가 하면, 중계카메라 뒤쪽 등 찾기도 힘들 곳에 앉아 있는 기자를 지명해 질문하도록 하는 바람에 정작 답변하는 대통령도 질문자를 찾지 못해 '어디 있느냐'며 찾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자는 "자유로운 문답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색을 내놓고 정작 기자회견 쇼를 한 것"이라며 "대변인이 질문자 순서까지 미리 정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30분 정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질문에 나선 기자는 12명이었지만 지역 기자에게 주어진 질문 기회는 단 한 번 뿐이었다. 이조차도 지역기자단 간사에게 주어진 기회여서 실제로 지역 관련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한 셈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기자단 차원에서 준비한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도 하지 못했다. 이날 질문자 중 외신기자도 3명이나 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맡았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채택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발표된 후 100일 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기구가 새롭게 인적 구성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연설에 지역을 특정해서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의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이해해 달라"며 "내달부터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고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의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지방은 없다."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가 열렸지만 대통령 모두발언에도, 100일 성과 책자에도, 질문응답 때도 '지방'

Today	
청년 정치인들 "민주당 개혁하라" 3면	
극단으로 치닫는 소년범죄 6면	
황의조 EPL 입성 험로 16면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NZ세대

NET ZERO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Net Zero)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NZ세대입니다!

**LED 조명으로**  
저녁도 밝게,  
지구도 밝게 바꿔요.

**온담고 냉방으로**  
적정온도 26°C를 지켜요.

**에너지 캐시백 가입으로**  
전기는 줄이고  
용돈은 늘려요!

**고효율 제품으로**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써요.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은 셧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